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특허청, 충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7.23.)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 23.(수) 14시 유네스코국제무역센터(충북 충주시)에서 충주시 상인,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8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충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4년도 지식재산 지원성과를 함께 공유했다. 지식재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562건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 819개사에 대해 지식재산으로 해외진출을 뒷받침한 결과 수출이 1,874억 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석자들은 지식재산이 충주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임에 공감하며, 보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선한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시)은 “충주에서 이처럼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특별하고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만큼, 충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성장의 열쇠가 된다”며, “지역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간담회 계획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선웅 (042-481-8621)
	지역산업재산과	담당자	사무관	진용석 (042-481-8498)

□ 개 요

- (목적) ①지역센터 지원사업 설명회 및 시책 공유, ②충주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 * (주관) 특허청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실
- (일시) '25. 7. 23.(수) 오후 2시
- (장소) 유네스코국제무역센터
- (참석자) 특허청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장, 수혜기업* 임직원 등
 - * IP 디딤돌, IP 나라,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수혜기업 및 충주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80여 개사